

# “중단없는 혁신교육... 질문 있는 교실 만들 것”

## 직선 2기 교육감에 듣는다-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직선 2기 광주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행복한 학교’다. 이를 위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중단없는 혁신교육’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미래역량을 기르도록 교육과정과 재구성해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이 있는 수업혁신을 이뤄 진정한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꾀한다는 것이다.

장 교육감은 또 교육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광주희망교실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직선 2기를 열게 된 소감은.  
▲직선 2기 개막은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바라는 광주 시민들의 승리이며, 참교육의 승리다. 직선 1기에 추진했던 보편적 교육복지와 청렴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결과다.

-지난 4년간의 정책 중 아쉬운 점은.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혁신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싶었는데 실행하지 못했다. 또 일선 학교장들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기대에 못 미쳐 매우 아쉽다.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학교가 자율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학교장의 권한이 과거처럼 제약적 권위로 군림하려해서는 안 된다. 학교장의 권한은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적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발휘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교장들을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삼아 교육을 개혁해 나가겠다.



### 장휘국 교육감 프로필

▲1950년 8월2일 충북 단양 출생 ▲광주·광주교대·조선대 대학원 졸업 ▲초·중·고 교사 28년 재직 ▲전교조 광주지부장 ▲광주시 교육위원

대한 정책 변화는 있다.

▲기본적으로 편중화를 저해하는 자사고·자공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자사고와 자공고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 여부는 이들 학교에 대한 평가 결과에 달려 있다. 평가 결과,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면 지속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것이다. 특히, 평가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온다면 무리 없이 지정하겠지만 낮거나 커트라인을 약간 상회한다면 고민해 볼 것이다.

-일반고는 진화, 특성화고는 취업이 우선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은 있다.

▲앞으로는 수능성적이나 내신성적 등을 실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문화혁신학교, 학교 교육력을 높여왔다. 특히 교육력 제고 사업에 지난해 25억원, 올해 50억원(교육부 투자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직선 2기에는 학교문

화혁신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꿈과 미래에 대해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로진학교육원을 설립해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 세계 변화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진로교육으로 창업과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겠다. 독서·토론·논술교육지원센터 설립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은 물론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17명의 교육감 중 진보 성향이 13명으로 압도적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보수화되고 있다. 갈등이 만만치 않을 듯 한데.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교육개혁과 혁신교육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표출이다. 국민도 이들 교육감에게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걸거다. 13명의 진보 교육감들과 연대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 교육부와 관계는 먼저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도교육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요 정책이나 현안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나간다면 지방교육자치의 발전과 함께 우리 교육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거명되고 있는데 교육감의 의지는.

▲지난 4년간 교육감을 지내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을 수행했다. 진보 교육감이 13곳에서 당선되면서 이러한 경험 때문에 회장으로 거론되는 것 같다. 지금 당장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변에서 그러한 역할을 필요하다고 한다면 고민해 보겠다.

-교육계 분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은.

### 자사고 지속 여부, 평가 결과에 달려

### 소통·공감으로 교육계 분열 우려 불식

▲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뿐 광주교육계가 전교조와 비전교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갈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교육철학이 있고, 광주교육에 대한 생각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 때로는 부딪치고, 때로는 화합하면서 광주교육이 발전한다. 그러나, 일부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교육감이 불통한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직선 교육감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학부모와 광주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월호 참사를 보며 책임있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다.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한 이들은 선생님이었다. 한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다시 아래층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문자로 격려하고 희망을 나누었다. 서로 믿었고, 서로 지켜주고자 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그렇게 서로 보살피고, 지키고, 믿고, 존경한다. 저는 그 믿음들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인정과 정감 넘치는 논두렁 식사



### (75) 새참

지난 주, 연이틀 당일 일정으로 서울 출장을 다녀왔다. 많이 가까워 졌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서울 길은 여전히 멀다. 우리 땅이 새삼 넓고도 크다는 생각이 들만큼 고단하고 길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이어진 모내기를 마친 푸른 들녘 풍경이 없었다면 아마도 더 힘들었을 것이다.

논 가득 잘랑거리는 물과 어린 모들, 가지런하게 줄이어진 채소밭을 보니 요즘이 한창 농번기인 듯싶다. 농번기와 함께 늘 연상되는 풍경은 일하다 들에서 한상 차려 먹는 못밥이나 새참이다. 광주 토박이인 탓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전해들은 그 새참의 왓자한 분위기와 꿀맛은 상상만으로도 정겹다.

공재 윤두서와 함께 조선후기 풍속화의 개척에 크게 기여한 관아재 조영석(1686~1761)의 작품 ‘새참’은 고된 농사일을 하다가 식사를 하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아들에게 밥을 떠먹이고 있는 아버지의 표정이 흐뭇하고, 음식 바구니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누는 가하면, 아낙이 “더 먹으라”며 가득 음식을 담아 일꾼에게 바구니를 건네주는 인정 어린 풍경이 정감 넘친다.



조영석 작 '새참'

전통적인 선비화가로서 ‘바느질’ ‘작두질’ ‘소뿔 짜기’ 등 뛰어난 풍속화를 다수 남겼던 조영석의 그림들은 그의 아들이 모아 엮은 화첩을 통해 전해진다.

조영석은 ‘사제첩(麴臚帖)’, 즉 ‘사향노루의 향기 나는 그림’이라는 뜻의 제목을 붙이고 그 표지에 ‘勿示人 犯者非吾子孫(남들에게 보이지 말라 이것을 범한 자는 내 자손이 아니다)’이라는 금기의 엄명을 덧붙여 놓았다.

‘풍속화’의 저자 이태호교수(명지대 미술사학과)는 “이는 봉건사회의 선비 관료가 서민층의 풍속을 다룬 데 대한 사회적 제약을 염두에 둔 것이라 여겨진다”고 설명한다.

진보적 성향으로 당대 풍속과 민중의 삶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한계 때문에 당당히 내보일 수 없었던 조영석의 그림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두고두고 정겹게 꺼내보고 싶은 친근한 작품이 되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 광주시-서울시 상생발전 손 잡았다

### 문화전당 관광프로그램 등 8개 사업 공동 추진 협약

### 박원순시장 오늘 광주 방문

‘소통’과 ‘혁신’이 상생을 위해 손을 잡는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전 10시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서울시-광주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호남의 대표 도시인 광주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두 도시는 민선6기 출범에 맞춰 상호 긴밀한 논의과정을 거쳐 문화·관광, 체육, 혁신, 경제 등 4개 분야 8개 협력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두 도시는 ▲아시아문화전당 관광프로그램 공동 추진 ▲김치문화축제 공조 및 광주김치 판로개척



박원순 시장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 ▲혁신정책 공동 추진 및 혁신 사례 공유 ▲공무원 교류 ▲폐기물 기초시설 운영·기술 교류 협력 ▲청년 창업·창업자 공유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경제제품 공동 판매 등 8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호증진과 상호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박원순 시장은 광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혁신정책’에 대한 특강(및고을 E&C 아카데미 강좌)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

명품 숲길을 건다!

## 구례편백숲

답답한 도시생활, 되풀이되는 직장생활, 휴대전화만 바라보는 피폐한 생활. 이제는 자유롭게 훌가분하게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구례군 대표 QR코드입니다.

구례군 구례군의회

지리산둘레길(계척-밤재 길목 편백나무숲)